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 페어 북한 려대옥-김주식 조(뒤)와 한국 김규은-감강찬 조가 5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라델피아 슈퍼볼 첫 우승

디펜딩 챔프 뉴잉글랜드 제압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디펜딩 챔피언'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를 꺾고 창단 이후 처음으로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필라델피아는 5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의 US뱅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인 제52회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를 41-33(9-3 13-9 7-14 12-7)으로 제압했다.

1933년 창단한 필라델피아는 슈퍼볼이 생기기 전 NFL 챔피언십 우승을 세 차례 차지했으나 슈퍼볼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다.

1981년과 2005년 두 차례 슈퍼볼에 진출했지만, 오�클랜드 레이더스와 뉴잉글랜드에 각각 패하며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13년 만에 뉴잉글랜드를 슈퍼볼 무대에서 다시 만난 필라델피아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라는 평가를 받고 2005년의 복수와 함께 창단 첫 슈퍼볼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반면 지난해 슈퍼볼에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로 통산 5번째 우승을 일궈낸 뉴잉글랜드는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보유한 슈퍼볼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인 6번째 우승에 도전했지만, 필라델피아의 돌풍을 막지 못했다.

통산 8번째 슈퍼볼에 나선 뉴잉글랜드의 스타 쿼터백 톰 브래디도 이번에는 고개를 떨궈야 했다. 브래디의 슈퍼볼 통산 전적은 8전 5승 3패가 됐다. 슈퍼볼 최우수선수(MVP)에는 필라델피아의 쿼터백 닉 폴스가 선정됐다. /연합뉴스

'김치·김밥의 우정' 남북 피겨 페어 '재회'

南 김규은-감강찬·北 려대옥-김주식 함께 연습

김규은 "라커에서 려대옥 생일선물 줘야죠"



D-3

"준비한 생일 선물은 이따가 라커룸에서 주려고요." 지난해 캐나다에서 맺은 우정이 마침내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이어졌다. 남북 피겨 페어를 대표해서 '평창 무대'에 나선 '남쪽' 김규은-감강찬 조와 '북쪽' 려대옥-김주식 조가 마침내 같은 훈련장에서 만났다.

평창동계올림픽 피겨 페어에서 경쟁하는 김규은-감강찬 조와 려대옥-김주식 조는 5일 오후 강릉도 강릉시 강릉아이스아레나 연습링크에서 나란히 연습했다.

지난 1일 방남한 려대옥-김주식은 2일부터 훈련을 시작했다. 전날 강릉선수촌에 입촌한 김규은-감강찬은 이날 처음 훈련장 열음을 밟았다. 이미 두 '페어 커플'은 지난해 2월부터 따뜻한 우정을 이어온 터라 링크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눈빛 교환'으로 서로 반가움을 표시했다. 김규은-감강찬은 지난해 2월 일본 삿포로 동계아시아게임에서 려대옥-김주식을 처음 만났고, 지난해 여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브뤼노 마르코트 코치에게 함께 지도를 받으면서 친밀감을 쌓아갔다. 당시 북한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에게 김치를 선물했고, 한국 선수들은 김밥으로 응대하며 우정을 쌓았다. 잠시 시련도 있었다. 남북 단일팀 논의가 생기면서 일부에서 려대옥-김주식 조를 한국이 출전하는 팀 이벤트의 일원으로 넣는 게 어떠한 의견이 나왔고, 자칫 김규은-감강찬은 올림픽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휩싸이기도 했다. 결국 남북 단일팀 논의는 여자 아이스하키로만 한정되면서 김규은-감강찬은 비록 자격으로 올림픽 티켓을 따지는 못했지만 개최국 쿼터로 '평창행'에 성공했다. 기본 좋게 나란히 평창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려대옥-김주식과 김규은-감강찬은 마침내 이날 오후 훈련에서 지난해 여름 이후 처음 만나게 됐다.

남북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면서 아이스링크는 한국, 일본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이날 훈련에는 일본의 스즈키 미우-기하라 류이치 조도 함께 했다.

김규은-감강찬이 훈련 예정인 오후 3시보다 일찍 링크에 도착해 몸을 풀었고, 려대옥-김주식 조가 조금 늦게 도착한 터라 라커룸에서 마주치질 않았다.

하지만 대회 개막이 임박해온 터라 아는 척 제대로 못 하고 서로 훈련에만 집중했다.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훈련 나흘째를 맞은 려대옥-김주식은 이날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집중적으로 연마했고, 이날 처음 훈련에 나선 김규은-감강찬은 쇼트프로그렘 음악에 맞춰 안무 맞추기에 집중하면서 링크 적응에 나섰다.

특히 려대옥-김주식은 이날 려대옥의 점프 실수가 잇달아 나오면서 트리플 토루

프와 스로 살코 완성도 높이기에 훈련 시간의 대부분을 보냈다.

훈련 도중 감강찬과 김주식은 잠시 눈이 마주쳤고, 가벼운 눈인사로 반가움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려대옥-김주식이 먼저 훈련을 끝내고 퇴장했다. 둘은 믹스트존을 지나면서 훈련 느낌을 묻는 취재진에게 웃으며 "괜찮습니다"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경기장을 떠났다.

곧바로 믹스트존으로 나온 김규은-감강찬은 "경기장 도착 시간이 달라서 려대옥-김주식을 만날 시간이 없었다"라며 "지금은 훈련에만 집중할 때여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이 생일이었던 려대옥에게 선물을 준비했다는 김규은은 "이따 라커룸에서 만나면 선물을 주기로 했다. 혹시 못 만나면 나중에 선수촌 등에서 만날 때 주겠다"고 웃음을 지었다. /연합뉴스

예열 마친 이상화 빅뱅 부상 회복 고다이아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빙속 여제' 이상화(29·스포츠포토)가 입국했다.

2018 평창올림픽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꼽히는 고다이아 나옴(일본)와의 라이벌전 분위기도 고조된다.

이상화는 5일 독일 전지훈련을 마치고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6일에는 '결전지' 강릉에 입성한다.

이상화는 지난달 22일부터 개인 지도자인 케빈 크로켓 코치가 이끄는 캐나다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들과 독일에서 전지훈련을 했다.

기분 좋은 성과도 있었다. 이상화는 훈련 삼야 출전한 B급 국제대회 프리런제컵 여자 500m에서 37초 18, 트랙 레코드를 작성하며 1위를 차지했다.

동계올림픽 3연패를 위한 예열이다. 이상화는 2010년 밴쿠버, 2014년 소치 올림픽 여자 500m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올림픽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한다.

이상화는 14일 1,000m에 나서고, 18일 500m에서 승부수를 던진다. 하지만 우승을 장담할 수는 없다.

사실 최근 '빙속 단거리 최강' 자리는 고다이아가 차지하고 있다.

고다이아는 평창올림픽 일본 대표 선발전 500m 경기에서 일본 국내 최고 기록인 37초 13으로 우승하면서 국내외 통틀어 24연승을 작성했다.

여기에 고다이아는 지난 11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1,000m 디비전A(1부리그)에서 1분12초09의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일본은 3개 종목(500, 1000, 1500m)에 출전하는 고다이아에게 금메달 2개 이상을 기대한다. 일본 대표팀 주장 완장을 찬

고다이아는 4일 입국했다. 이상화가 하루 늦게, 한국에 도착했다. 장거리 비행에 피로를 느낀 이상화는 취재진이 기다린 출구를 피해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선 뒤, 서울 속소로 이동했다. 이상화와 고다이아가 펼칠 세기의 빙속 대결이 점점 다가온다. /연합뉴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빙속 여제' 이상화(29·스포츠포토)의 최대 맞수 고다이아 나옴(32·일본)가 최근 약간의 부상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대표팀에서 고다이아를 지도하는 유키 마사히로 코치는 5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첫 공식 훈련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달 19~21일 독일 에르푸르트에서 열린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5차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속사정을 밝혔다.

유키 코치는 "5차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국내(일본)에서 계속 연습했다"며 "레이스가 좋지 않았던 부분을 수정하고, 왼쪽 엉덩이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근력을 회복시키는 것 등 두 단계로 1개월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월부터 치른 월드컵 1~2차 대회 등을 떠올리도록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며 자극을 주며 한 달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부상 사실을 공개하긴 했지만, 유키 코치는 고다이아의 현재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고다이아가 들뜬 상태는 아닌 것 같다"며 "앞선 두 번의 대회와는 다른 히스토리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다이아는 앞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무명'으로 대회에 참가했다면, 평창에서는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다.

유키 코치는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의 얼음 상태도 고다이아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기장이)조금 따뜻한 느낌이라 몸을 움직이기 좋고, 얼음도 표면이 조금 녹아 잘 탈 수 있는 상태"라며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얼음이 깨지기 쉬워 보인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체중이 덜 나가는 일본인에게 좋은 얼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고다이아 외에 남자 단거리의 야마나카 다이치(28)도 메달을 노릴 만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연합뉴스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각방'

머리 감독 '합숙' 요청 불발... 10일 스위스전 등 5경기

올림픽에서 최초로 결성된 남북단일팀인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5일 오전 1시 강릉도 강릉 선수촌에 입촌했다.

전날 오후 인천선학링크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평가전에서 1-3으로 패한 직후 단일팀은 곧바로 강릉으로 향해 5일 자정이 지난 시간에 선수촌에 도착했다.

단일팀은 단합을 중시하는 새리 머리(캐나다) 감독의 요청에 따라 남북 선수들이 올림픽 기간 같은 숙소에서 머물 가능성도 나왔으나 우리나라 선수들은 한국 선수단이 동지를 튼 801동에, 북한 선수들은 인공기가 내걸린 804동에 각각 입소했다.

머리 감독의 요청에 북측 관계자들은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선수촌에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같은 숙소 배정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내비쳤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22명으로 이뤄진 북한 선수단의 주축이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기에 북측이 남북 선수들의 합동 투숙을 부응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서로 다른 동에 머무는 이상 남북단일팀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팀워크가 중요한 종목 특성상 머리 감독이 선수촌 회의실에서 자주 선수들을 불러 조지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20일 스위스 로잔의 국제올

림픽위원회(IOC) 본부에서 열린 IOC 주재 남북한 올림픽 참가 회의에서 남북은 올림픽 사상 처음이자 역대 세 번째로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단일팀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 선수 23명에 북한 선수 12명이 가세해 35명으로 팀을 꾸렸다. 우리나라는 스위스팀으로 단일팀을 지휘하는 머리 감독은 남북 합의에 따라 매 경기 북한 선수를 3명씩 기용해야 한다.

단일팀은 'KOREA'라는 팀 명과 함께 푸른색 한반도 형상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는다. 'KOR'(한국), 'PRK'(북한) 등 서로 다른 남북의 영문 축약어를 아우를 수 있는 단어로 붙여 'COREE'에서 차용한 'COR'이 단일팀의 축약어로 선택됐다.

1월 25일 방남한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곧장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으로 이동해 우리나라 선수들과 상견례를 하고 곧바로 훈련을 시작했다.

따로 연습하던 남북 선수들은 1월 28일부터 합동훈련을 치르며 조직력을 다져왔다. 남북 선수들과 머리 감독이 이를 연습 북한 선수의 생일 파티를 함께하며 단일팀 선수들은 금세 친해졌다.

선수촌에 입촌해 본격적으로 올림픽을 준비하는 단일팀은 10일 스위스, 12일 스웨덴, 14일 일본과 B조 조별리그를 치르고 이후 순위결정전 등 총 5경기에 임한다. /연합뉴스